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김윤정*, 이창식**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Yun-Jeong Kim*, Chang Seek Lee**

Dept. of Elderly Welfare*

Dept. of Child and Adolescent Welfare**

요약 본 논문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청소년 399명을 대상으로 전국 10개 도시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자살생각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희망은 자살생각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스트레스가 희망보다도 자살생각에 더 높은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2점이 되지 않아 낮은 편이라 할 수 있고 스트레스는 중간수준이며, 희망인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는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다. 셋째,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경로사고와 주도사고가 매개되었다. 즉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생각이 높다 해도 경로사고와 주도사고가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은 낮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에 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난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여고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주도사고는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나 경로사고는 검증되지 않았다.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자살생각, 매개효과, 희망, 주도사고, 경로사고, 소벨테스트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For the study, 399 adolescents were surveyed at 10 cities of Korea from May to August in 2010. Main results of the study were in the followings. First, it was found out that stress of adolesce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uicidal ideation, hop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uicidal ideation, and stress influenced more suicidal ideation than hope. Seco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tended to be low, stress was in the middle level, and agency and pathways thinking of hope was higher than middle level. Third, it was proved that agency and pathways thinking of hope was mediated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Lastly, for the female adolescent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nd large cities, only agency thinking of hope was mediated but pathways thinking was not mediated. Policy implications for preventing and decreasing adolescent's suicide were suggested.

Key Words : Suicide ideation, Stress, Mediating effect, Hope, Agency thinking, Pathways thinking, Sobel's test

Received 3 March 2014, Revised 19 April 2014

Accepted 20 June 2014

Corresponding Author: Chang Seek Lee(Hanseu University)

Email: lee1246@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남녀학생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나, 무엇보다도 자살생각이나 자살 시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1]는 것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이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은 충동적이라는 점에서 자살의 전염성이 높는데, 청소년 통계조사[2]에 의하면 청소년의 8.8%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살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세대 층의 인구감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이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정신적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는 그 이후의 생애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Reinherz, Tanner, Berger, Beardslee, Fitzmaurice[3]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를 통해, 15세 때 자살생각을 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성인기 때의 자살생각만이 아니라 우울, 문제행동이 높았고, 자존감과 대인관계망도 낮았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수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청소년기의 자살은 성인이나 노인과는 달리 상당히 충동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은 인지적·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상태이며[4], 정서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5][6]. 이러한 점을 몇몇의 학자는[7][8] 청소년의 자살이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충동이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방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충동적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뿐 아니라, 자살생각을 조절해줄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는 작업은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중요할 것이다.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졌다. 스트레스는 질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질병의 과정과 결과에도 영향을 주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은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9], Baumeister[10]은 자살충동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스트레스로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기대상황과 현실상황에 괴리가 존재

하면 그로부터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그 스트레스가 몇 단계를 거쳐 자살충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11]. 또한 스트레스 취약성 이론에 의하면 취약성이 높은 개인은 어떤 사건이나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이 적어서 자살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취약한 요인이 적은 사람은 심한 스트레스에도 잘 적응한다[12]. Wilson 등[13]도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은 자살 시도 전 몇 주 혹은 몇 달 전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고 스트레스 사건의 통제 정도를 부정확하게 평가했다고 하였다.

현대의 청소년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스트레스 요인이 많다. 성장과정에 나타나는 부모자녀관계의 의사소통의 단절[14][15], 학교 내의 비행[16]이나 집단 따돌림[17], 진로[18]나 학교 스트레스[19], 학업스트레스[15][20] 등 스트레스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 당면한 청소년이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도피하려는 수단으로 자살생각을 하게 되며[21], 경험적 연구[11][22-26]에서도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가 청소년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으로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을 조절 혹은 매개할 수 있는 변인을 밝히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치연, 김효창, 현명호[27], Rudd[28]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Cheng[29]의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무망감, 낮은 자존감, 문제해결 등의 조절변인을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선행연구자들은 자살생각의 매개 혹은 보호요인으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자존감의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희망이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모색하고, 이러한 경로를 활용하는 동기를 생성하는 목표지향적인 사고이다[30]. Snyder, LaPointe, Crowson, Early[31]은 희망을 경로사고(pathway thought)와 주도사고(agency thought)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경로사고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경로를 찾아내고 활용하는 것, 주도사고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런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청소년에게 희망은 자신과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신념이자 편안한 마음과 삶을 유지시키는 것으로[32] 살기 위한 긍정적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직면한 상황에서 가장 힘이 되는 자원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희망[33]이며, 스트레스와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반응의 한 요소로서 신체적, 정신적인 방어를 강화[34]시키는 힘이 있다. 희망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이며,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 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지각하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30][35].

물론 그간 스트레스 상황에서 희망의 긍정적인 역할에 관심을 가져온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승하[36]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희망에 의해 조절된다고 하였고, 조현주[37]도 희망이 문제를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생활스트레스를 조절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정현[38]도 생활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신체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조절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희망과 관련된 개념이나 이론적 주장, 경험적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스트레스에 처한 청소년이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희망은 대안을 찾고 신체적 정신적인 방어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서 매개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장애물에 봉착했을 때 대안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39-41]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생각에서도 희망은 보호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그간 학문적 관심이 부족하였던 청소년 자살에서 희망의 긍정적인 역할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우리사회에서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의 자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살생각, 희망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스트레스가 높고 자살생각이 많은 청소년 집단에서 희망의 매개역할은 어떠한가? 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날로 증가되는 청소년자살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거주지를 통한 할당표집을 실시하였다. 즉, 전국 10개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0년 5월부터 2010년 8월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를 통해 교사가 설문조사자로 활동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 무응답이 많은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청소년 399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모두 5점 Likert 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2.1 자살생각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Harlow등[42]에 의해 개발된 Suicide Ideation Scale 척도를 김형수[43]가 번안한 5문항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인 Cronbach's alpha는 .92로 높았다.

2.2.2 스트레스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한국어판 스트레스 측정도구인 BEPSI-K(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Korean)를 사용하였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5 이다.

2.2.3 희망

청소년의 희망은 Snyder, Harris, Anderson, Holeran, Irving, Sigmon[44]이 개발하고, Venning, Elliott, Kettler와 Wilson[45]이 청소년에 적용하기 위해 수정한 희망척도(Hope Scale)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열성적으로 나의 목표를 추구한다', '나의 과거 경험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다' 등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2문항 중 4문항은 주도사고이고, 4문항은 경

로사고이며, 4문항은 허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도 사고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79이고, 경로사고는 .83이다.

2.3 청소년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남자청소년 197명(49.4%), 여자 청소년 202명(50.6%) 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학교급 분포는 중학생이 161명(40.4%), 고등학생이 238명(59.6%)으로 고등학생의 수가 약간 많았다. 또한 이들의 연령 분포는 만 12~19세이였으며, 중학생의 평균연령은 만 13.7세(SD=1.0)이고, 고등 학생의 평균연령은 만 17.0세(SD=0.8)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를 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163명(41.1%)이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169명(42.6%), 농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65(16.4%)로 도시에 비해 농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가족형태를 보면 핵가족인 경우가 293명(73.4%)으로 확대가족이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4 자료분석

자료는 변인간 상관관계 파악을 위해 상관분석, 변인의 일반적 경향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비교분석(t-test, ANOVA)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 검증 을 위하여 Baron과 Kenny[46]의 매개 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s test[47]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살생각, 희망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1과 같이 스트레스는 자살생각과 정적 상관 관계($r=.504, p<.01$)를 보인 반면 희망의 하위영역인 주도 사고($r=-.250, p<.01$)와 경로사고($r=-.184, p<.01$)와는 부 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이 스트레

스와 희망 간의 상관관계보다 약 2배 가까운 효과(effect size)를 보였다(Cohen, 1992). 그리고 자살생각은 희망의 주도($r=-.292, p<.01$) 및 경로사고($r=-.228, p<.01$)와 유의 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1) Correlation matrix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N=399)

	1	2	3	4
1.Stress	1			
2.Suicidal ideation	.504**	1		
3. Agency thinking	-.250**	-.292**	1	
4.Pathways thinking	-.184**	-.228**	.726**	1
M	2.96	1.80	3.26	3.31
SD	.94	.96	.72	.72

**p<.01

기술통계 분석 결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1.80점으로 낮은 편이었고 스트레스는 중앙값인 3점에 약간 못 미치는 2.96점이었다. 희망은 경로사고와 주도사고가 각각 3.31점, 3.26점으로 중앙값 이상인 보통 수준 이상이었다 (Table 1).

3.2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 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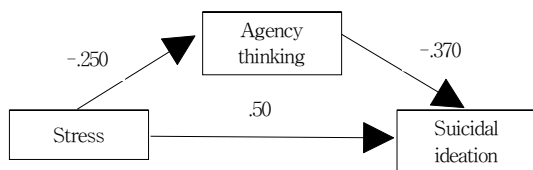
Table 2와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스 트레스가 주도사고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26.419, p<.001$), 2단계에서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을 유의미하 게 예측하였다($F=134.862, p<.001$). 3단계에서 스트레스 와 주도사고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이들 두 변인이 자 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F=78.369, p<.001$), 3 단계 스트레스의 표준화 계수(β) 값이 2단계 .504에서 .460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주도사고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 으며,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 결과(Sobel test: $Z=3.943, p<.001$)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 다.

<Table 2> Regression analysis on suicidal ideation for total samp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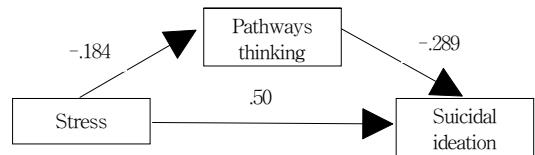
IV	DV	B	SE	β	R ²	F	Sobel's test
Stress	Agency thinking	-.192	.037	-.250***	.063	26.419***	3.943**
Stress	Suicidal ideation	.488	.042	.504***	.254	134.862***	
Agency thinking	Suicidal ideation	.448	.043	.460***	.284	78.369***	
Stress	Pathways thinking	-.141	.038	-.184***	.034	13.947***	2.903**
Stress	Suicidal ideation	.488	.042	.504***	.254	134.862***	
Pathways thinking	Suicidal ideation	-.177	.055	-.139***	.273	74.303***	

p.<01, *p.<001

또한 Table 2와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 스트레스가 경로사고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13.947, p<.001), 2단계에서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F=134.862, p<.001). 3단계에서 스트레스와 주도사고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이들 두 변인이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F=74.303, p<.001), 3단계에서 스트레스의 표준화 계수 값이 2단계에서의 .504에서 .479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경로사고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 결과(Sobel test: Z=3.943, p<.001)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Figure 1]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agency thinking, and suicidal ideation



[Figure 2]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pathways thinking, and suicidal ide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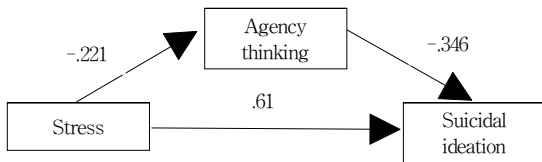
한편 스트레스, 희망, 자살생각이 성별, 학교급, 거주지에 따라 취약한 청소년 집단이 구별되는지를 평균비교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 이러한 집단에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평균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 거주지에 따라서 자살생각, 스트레스, 희망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 여자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았고,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자살생각과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희망은 낮았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 및 중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과 스트레스는 낮고 희망은 높았다. 즉, 도시와 대도시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이 자살생각에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청소년을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n suicidal ideation for selected samples

IV	DV	B	SE	β	R ²	F	Sobel's test
Stress	Agency thinking	-.178	.060	-.221**	.049	8.812**	2.529**
Stress	Suicidal ideation	.609	.075	.526***	.276	65.272***	
Agency thinking	Suicidal ideation	.547	.074	.472***	.332	42.164***	
Stress	Pathways thinking	-.101	.055	-.138	.019	3.299	1.547
Stress	Suicidal ideation	.609	.075	.526***	.276	65.272***	
Pathways thinking	Suicidal ideation	-.229	.103	-.145*	.297	35.875***	

**p.<01

대상으로 희망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주도사고와 경로사고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주도사고의 부분매개효과는 검증되었으나(Sobel test: $Z=2.529$, $p<.01$) 경로사고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Sobel test: $Z=1.547$, $p>.05$). 즉, 주도사고는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살을 감소시키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로사고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agency thinking, and suicidal ideation for selected samples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에서 희망변인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청소년 399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SPSS WIN 21.0과 Sobel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는 자살생각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주도사고와 경로사고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효과가 희망과 자살생각간의 효과보다 높았다. 그리고 자살생각은 희망의 주도 및 경로 사고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스트레스가 희망보다도 자살생각에 더 많은 효과를 미치는 이유는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은 인과의 관계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희망은 동기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감소는 자살에

방을 위한 매우 직접적인 대책인 반면 희망 증진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동기부여를 위한 대책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자살생각수준은 낮은 편이었으나 스트레스는 보통수준이고, 희망은 보통 이상 수준이었다. 따라서 정신건강에서 가장 부정적이라 할 수 있는 자살생각의 점수가 2점(그렇지 않다)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의 자살로 사회적 우려가 가중되고는 있으나 본 연구결과 전반적인 청소년의 자살위험정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살은 한 사회구성원의 감소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살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찾아내고 이들의 자살생각을 낮추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만이 아니라 학교 현장과 가정 내에서의 주의가 필요함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 청소년의 자살을 막기 위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센터를 설립하고 정책적 위원회를 발족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은 우리사회의 어두운 일면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자살생각이 높은 청소년의 주변 대인관계망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청소년의 스트레스로 자살생각이 높아지지만 주도사고 및 경로사고가 높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에도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에 차이를 보인다는 Snyder, Lapointe, Crowson, & Early[31]의 주장을 고려해 보면 청소년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고취시켜 줌으로서 스트레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고 이를 통해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희망의 하위요인인 경로사고는 바람직한 목표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사람의 지각된 능력이며, 주도사고는 바람직한 목표 달성을 위해 찾아낸 경로를 따라 활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지각된 능력을 의미[31]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방안을 찾고 주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능

력을 강화시킴으로서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 거주지에 따라서 자살생각, 스트레스, 희망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 여자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았고,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자살생각과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희망은 낮았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 및 중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과 스트레스는 낮고 희망은 높았다. 따라서 자살생각에 취약한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주도사고는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나 경로사고는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즉 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여학생 청소년집단은 목표설정과 관련된 주도사고가 높으면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목표도달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경로사고를 높인다고 해서 자살사고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의 감소와 더불어 주도사고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본 연구는 학교에 재학중인 중고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자살 노출이 더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비행이 저연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 연구 또한 필요하다.

REFERENCES

- [1] Statistical office, Survey on youth, 2013
- [2] Statistical office, Survey on youth, 2012.
- [3] H. Z. Reinherz, L. Tanner, S. R. Berger, W. R. Beardslee, G. M. Fitzmaurice,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s predictive of psychopathology, suicidal behavior, and compromised functioning at age 30.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63, pp.1226-1232, 2006.
- [4] Song Hanna, Family factors of suicid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3.
- [5] H. S. Kim, & B. S. Kim, Verifica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of Suicidal Ideation to Its Related Variabl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Vol. 20, No. 2, 201-219, 2008.
- [6] D. A. Brent, Correlates of medical lethality of suicide attempt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Vol.26, pp. 87-89, 1987.
- [7] J. A. Bridge, T. R. Goldstein, D.A.Brent, Adolescent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47, pp.372-394, 2006.
- [8] G. M. Blau, T. P. Gullotta, Adolescent dysfunctional behavior: Causes, interventions, and prevention. Sage Publications, 1996.
- [9] R. C. Kessler, R. H. Price, C. B. Wortman,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36, pp.531-572, 1985.
- [10] R. F. Baumeister,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 Review*, Vol.97, pp90-113, 1990.
- [11] Sohn Jung Nam, Discriminating Power of Suicidal by Life Stress, Coping Strategy,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Vol.16, No.3, pp.267-275, 2007.
- [12] K. H. Kim, & M. H. Jeon, Study on the teenage suicid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25, No. 2, pp.127-152, 2000.
- [13] K. G. Wilson, J. Berman, J. N. Kral, M. Inayatullah, C. A. Elliot, Problem solving, stress, and coping in adolescent suicide attemp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25, pp2.41-252, 1995.
- [14] K. E. Bostik, R. D. Everall, Healing from suicide.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ing*, Vol.35, No.1, pp.79-96, 2007.
- [15] K. Y. Lee, S. C. Choi, & J. S. Kong, The effects of parents-children dysfunctional communication and academic stress on adolescents' suicide

- ide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5, pp.83-107, 2011.
- [16] M. Kitzrow, The mental health needs of today's college students: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NASPA Journal*, Vol.41, No.1, pp.165-179, 2003.
- [17] J. Y. Choi, Adolescent' School Bullying Experience and Suicidal Ideation. *Social research*, Vol.14, pp.223-238, 2007.
- [18] S. J. Kim, A study on the related factors of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Vol. 32, pp. 413-437, 2009.
- [19] B. G. Park, Exploratory Study of Eco-System Factors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University, 2006.
- [20] S. H. Jang, & M. A. Lee,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Focusing on Social support and buffering effects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7, No. 8, pp.27-55, 2010.
- [21] M. G.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related stress, negative emotion and suicidal idea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silience, *Forum for Youth Culture*, Vol. 9, 2011.
- [22] M. Y. Sim, K. H. Kim,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 of Korean adolescent: Moderating effect of sex and development period. *The Korean Health Psychol*, Vol.10, No.3, pp.313-325, 2005.
- [23] Y. S. Hong, S. Y. Jeon,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for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19, pp.125-149, 2005.
- [24] C. C. Edward, Predicting suicide ideation in an adolescent population: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problem solving as a moderator and a media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ol.32, pp.1279-1291, 2002
- [25] M. S. Gould, T. Greenberg, D. M. Velting, D. Shaffer, Youth suicide risk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Vol.42, pp.386-405, 2003.
- [26] A. Metha, E. H. McWhirter, Suicide ideation, depression, and stressful life events among gifted adolescent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Vol.20, No. 3, pp. 284-304, 1997.
- [27] Ji Yeon Lee, Hyo Chang Kim, Myoung Ho Hyun, The Relationship of Stres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uicide Ideation among Adolesc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0, No.4, pp.375-394, 2005.
- [28] M. D. Rudd, An interactive model of suicidal ide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20, pp.16-30, 1990.
- [29] S. K. Cheng, Life stress, problem solving,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symptom in chinese. *Cognitive Therapy an Research*, Vol.25, No.3, pp.303-310, 2001.
- [30] C. R. Snyder,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Free press, 1994.
- [31] C. R. Snyder, A. B. LaPointe, J. J. Crowson, S. Early, Preferences of high-hope and low-hope people for self-referential input. *Cognition and Emotion*, Vol.12, pp.807-823, 1998.
- [32] P. S. Hinds, Adolescent hopefulness in illness and healt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Vol.10, No.3, pp.79-88, 1988.
- [33] S. Breznitz, The effect of hope on coping with stress. In *Dynamics of Stress*. Springer US, pp.295-306, 1986.
- [34] R. F. McGee, Hope: A factor influencing crisis resolution. *Advances in Nursing Science*, Vol.6, No.4, pp.34-44, 1984.
- [35] M. E. P. Seligman, The effectiveness of psychotherapy; The Consumer Reports study. *American Psychologist*, Vol.50, pp.965-974, 1995.
- [36] S. H. Jin,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 Moderating Effects of Hop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Ajoo University,

- 2010.
- [37] H. J. Cho, The Effects of Hope on Life Stress, Psychopathology and Lif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9, No. 3, pp. 839-852, 2010.
- [38] J. H. Jang, Adolescents' Stresses and Mental Health : Hope as a Buffer,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Gyungnam University, 2008.
- [39] G. Affleck, H. Tennen, Construing benefits from adversity: Adaptational significance and dispositional underpinnings. Journal of personality, Vol.64, No.4, pp.899-922, 1996.
- [40] H. Tennen, G. Affleck, Finding benefits in adversity. Coping: The psychology of what works, 1999.
- [41] C. R. Snyder, Parenteau, C. Stacy, Shorey, S, Hal, Kahle, E. Kristin, Berg, Carla, Hope as the underlying process in the psychotherapeutic change process. International Gestalt Journal, Vol.25, No.2, pp.11-29, 2002,
- [42] L. L. Harlow, M. D. Newcomb, P. M. Bentler, Depression, self-derogation, substance use, and suicide idention; Lack of purpose in life as a mediational fac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42, No.1, pp.5-21, 1986.
- [43] H. S. Kim, A study on epistemology of Korean elder's suicidal thought.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2, No.1, pp. 159-172, 2002.
- [44] C. R. Snyder, C. Harris, J. R. Anderson, S. A. Holleran, L. M. Irving, S. T. Sigmon, L. Yoshinobu, J. Gibb, C. Langelle, P. Harney,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0, pp.570-585, 1991.
- [45] A. J. Venning, J. Elliott, L. Kettler, A. Wilson, Normative data for the Hope Scale using Australian adolescent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Vol.61, No.2, pp.100-106, 2009.
- [46]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pp.1173-1183, 1986.

- [47] M. E. Sobel,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 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1982.

김 윤 정(Kim, Yun Jeong)



- 199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문학석사)
- 200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문학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부양가치관, 자살,
- E-Mail : twoyun21@hanmail.net

이 창 식(Lee, Chang Seek)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
- 1991년 4월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D)
- 1993년 2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교육, 기부
- E-Mail : lee1246@hanmail.net